



NEWS LETTER

2018년 11월 05일 Vol. 326

기부자 유가족 초청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30일 기부자 유가족을 초청해 병원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비롯해 이진호 의료원장, 조성민 병원장 등 유가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05년 병원 개원 준비 시 고(故) 한기성 기부자로부터 기증받았던 조혈모세포이식 병동이 최신 시설의 병동으로 새단장하여 운영됨에 따라, 기부자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가족은 “뜻깊은 기념행사에 초대해 준 병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버지 이름의 기념 병동이 많은 환자에게 좋은 치유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은 “동국대학교 대외협력처장으로 재임 시 병원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 중 고 한기성 기부자를 처음 만나게 됐다. 이 자리는 당시 숭고한 뜻을 직접 건네받았던 인연으로 참석하게 됐다.”며, “초청행사에 직접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게 돼 기쁘다. 기부자님이 남겨준 소중한 뜻과 정성을 반듯하게 이어가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진호 의료원장,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 지도자 최고위특별과정’ 초청 강연

동국대학교의료원 이진호 의료원장은 지난 10월 29일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의 초청으로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 지도자 최고위과정’에 있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과 건강’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강연에는 연수과정에 있는 40여 명의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제법 무아, 일체개고의 삼법인과 계정혜 삼학, 삼독심, 중도사상 등 근본 교리를 질병과 건강을 비유한 상세한 설명으로 스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강의 이후 육신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건강한 수행생활에 필요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건강증진센터의 승가검진프로그램을 소개해 스님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신경과 김동억, 류위선 교수 연구팀, ‘인공지능기반 뇌졸중 통합 솔루션’ 개발을 위한 조인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6일 (주)제이엘케이인스펙션(대표 김원태)과 인공지능기반 뇌졸중 진단보조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신경과 김동억, 류위선 교수 연구팀이 최근 뇌경색 진단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해상도 뇌혈류 지도 개발 성공한데 이어, 국내 인공지능 의료영상진단 전문기업과의 기술 개발 협약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CT 기반 뇌출혈 진단은 물론 다중모드영상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CT에서 뇌경색을 초기에 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솔루션도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인공지능 기반 뇌경색 유형 진단보조 소프트웨어는 환자에게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가 의료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표준화된 뇌 MRI와 CT 데이터를 토대로 뇌졸중의 진단과 치료 과정 전반을 다루는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통합 솔루션이 개발되어 고도화 과정에 있으며,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인공지능 기반 뇌졸중 진단 기기이다.

